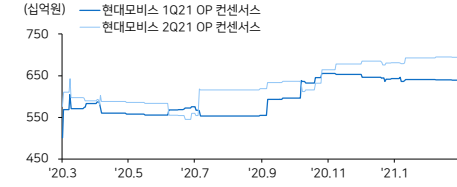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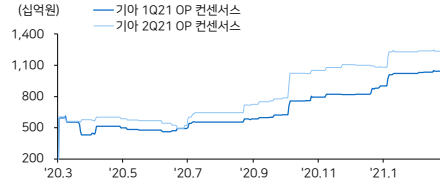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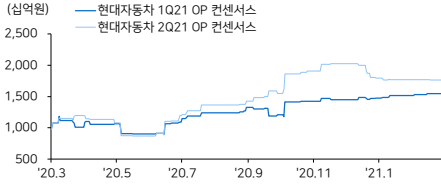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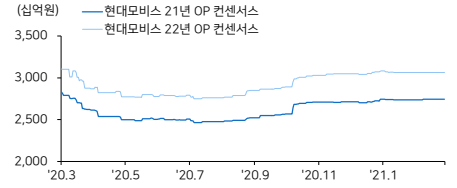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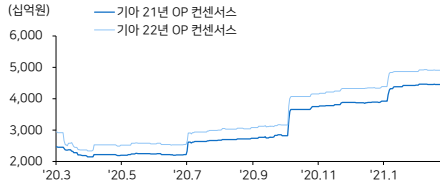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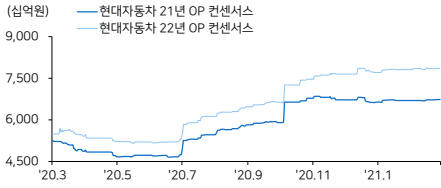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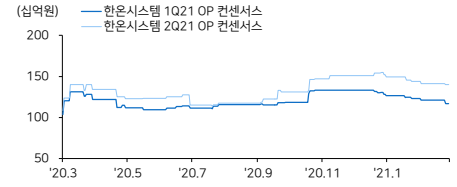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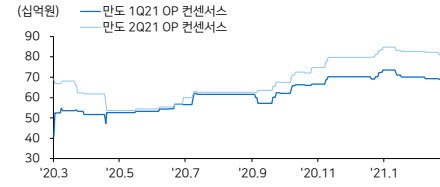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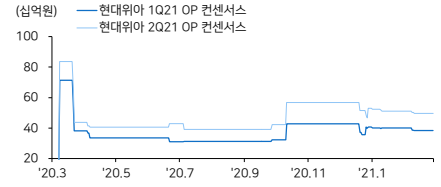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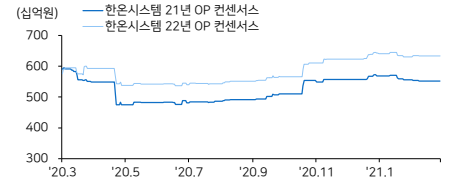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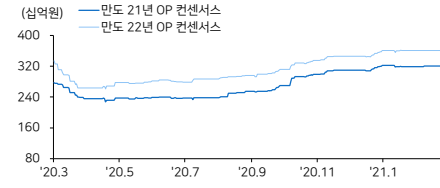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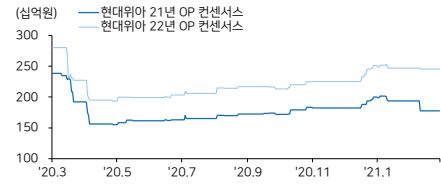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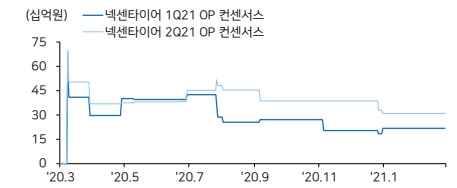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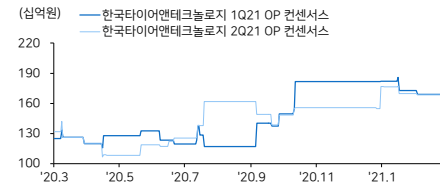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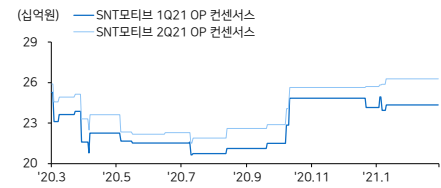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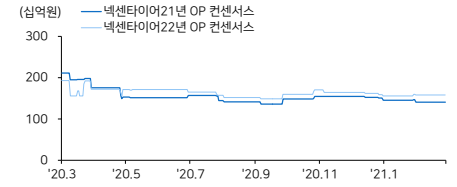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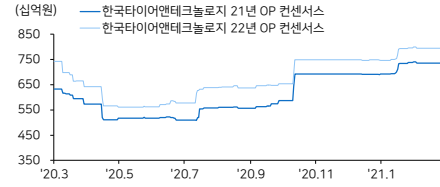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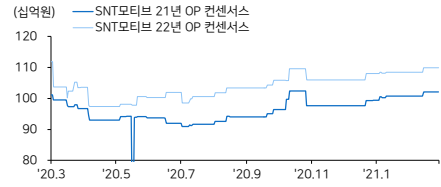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우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싱가포르 1위 통신사 싱텔과 미래 모빌리티 사업 맞은 (연합뉴스)

현대차는 싱텔과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제조·커넥티비티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 이번 협약은 작년 10월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건립하기로 했던 계획에 따른 것.
<http://bit.ly/397pqW0>

현대차, 베이징현대 영업수장 정적 교체... '현대웨이'로 중 반전 노린다 (THE GURU)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 베이징현대 영업수장을 1년 만에 중국인에서 '현대웨이'로 교체한다. 앞선 동맹위예다기아 총리(대표) 교체와 비슷한 행보로 중국 반전 시나리오를 '현대웨이'로 다시 쓴다는 방침에 따른 것.
<http://bit.ly/3vSKZUW>

타이어 업계, 미래차 시대 준비에 '분주' (뉴스토마토)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타이어 업체들도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음. 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는 전기차용 타이어를 개발하거나 전략적 협업, 인재영입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모습.
<http://bit.ly/3LdFun>

폭스바겐, 중국서 '플라이 텍스' 출시 계획 (ZDNet Korea)

중국 언론 칸카오신방은 23일 독일 현지 언론을 인용해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에서 플라이텍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함. VW는 자율주행뿐 아니라 수직 이동 컨셉이 모빌리티 미래이며, 특히 기술 진화력이 높은 중국 시장을 기대한다고 설명.
<https://bit.ly/2Pp0bGA>

현대차, 친환경차 수출 38% 급증... SUV 하이브리드 '가속'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차 수출 실적이 쏠타페, 투싼 등 신형 SUV 하이브리드 모델의 해외 수출이 본격화된 영향으로 전년 보다 38%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오닉5의 유럽 수출로 앞으로의 친환경차 수출 역시 기대됨.
<http://bit.ly/3NxEv9>

GM, 반도체 대란에 후 설계까지 변경... 현대차·기아도 4월부터 영향권 (조선비즈)

제너럴 모터스(GM)가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픽업트럭에서 연료 관리 모듈을 빼고 차량을 생산하기로 함. 수익성이 좋은 픽업트럭과 SUV의 경우 일부 시스템을 제외하더라도 생산을 멈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http://bit.ly/3ll1qyC>

2027년까지 1조1천억 투입, 자율주행 레벨 4+로 간다 (아이뉴스24)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경찰청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을 설립하고, 2027년까지 총 1조1천억원을 투입해 융합형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기로 함.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됐던 사업들을 총괄·기획관리할 예정.
<http://bit.ly/3vTnJvY>

폭스콘, 日 니맥과 '전기차 동맹' (한국경제)

폭스콘의 전기차 사업 계열사인 폭스트론과 니맥이 최근 전기차 생산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이번 협약에 따라 니맥은 폭스트론에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공급하게 됨. 니맥은 향후 5년간 전기차 부품에 1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
<http://bit.ly/39beXcZ>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